모든 게 법신이니 좋고 나쁜것도 없다

선지식을 찾아서

법정

법정 스님은 1959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3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강원을 수료했으며, 64년부터 79년까지 인천 용화사 범어사 동화사 해인사 등 제방 선방을 다니며 16안거를 성만했다.
89년 수덕사 말사 영봉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수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무엇이든 기다려 주는 넉넉함. 하지만 수행에는 분초를 다툰다. 세상만물이 스승이고 공부라는 법정 스님. 스님이 선지종찰(禪之宗刹) 수덕사의 주지인 이유는 그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법정 스님 (수덕사 주지)

넉넉했다. 절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도, 대웅전도, 전각들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모습도 그랬다. 겨울을 품은 수덕사의 한가로운 자태는 그대로가 자연이다. 집을 보면 사람을 안다고 했다. 그대로가 자연인 수덕사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

삼배를 올리자, 법정 스님도 삼배의 예로 기자를 맞았다. 스님으로부터 삼배의 예를 받아본 것은 두 번째였다. 3년 전에 법정 스님을 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스님은 기자를 삼배의 예로 맞아주셨다. 교구본사 주지라는 권위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스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탈했던 법정 스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보여드릴 것이 없는데, 손님을 맞았습니다. 차 한 잔으로 만족하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아예 먼저 낮추시니 말문이 막혔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사람을 편안하게도 하지만 그만큼 긴장하게도 한다.

> "인연은 자신이 만드는 것
>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이고
> 하는 일이 모두 공부이니…"

"스님을 두 번째 뵙지만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때는 스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렇지요. 세상 만물 인연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연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만남쯤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인연은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스승이고, 하는 일마다 모두가 공부입니다. 하지만 스승으로 삼지 못하고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스승도 공부도 없는 법입니다. 인연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하니 어찌 인연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정 스님은 '사람과 공부' 두 가지 인연을 말씀하셨다. 평소에도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신다는 스님의 인연론에 귀를 기울였다.

"경허 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일 마친 사람의 분상에 때로는 부처와 중생과 건곤과 대지를 부수어 하나의 작은 티끌을 삼으며, 때로는 제자리에 머무르며 때로는 그 자리를 바꾸어서 일체가 자재한다' 고 하셨습니다. 일 마친 사람의 분상이란 아마도 어른들을 명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앞선 시대를 산 어른들의 가르침은 귀감이 됩니다. 하물며 스승의 가르침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15세에 현재 수덕사 방장이신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서 인천 용화사에서 전강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효봉, 탄성, 송담, 활안 스님 등 불자들이 다 아실만한 스님들도 모시고 공부했지요. 그분들의 말씀 한 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는 그대로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전강 스님은 무섭게 정진시키셨지요. 하루 3시간 자며 정진했으니까요. 물론 기억하기 싫은 인연도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도 스승은 있고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오랜 세월동안 선 수행에 몰두해 온 수좌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스님의 성정 탓이다. 스님은 말 수가 극히 적다. 묻지 않으면 먼저 말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법이 없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늘 기다려준다.

"좋고 나쁜 것은 없지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님 법신이요,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부처님 법음인데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경받지 못할 것이 없으니, 이런 마음이 바로 대자비심입니다. 대자비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깨달음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속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다 속 물고기가 밖의 세상을 모르듯이 우리도 다른 세상을 모릅니다. 염불하고 참회하고 참선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이르겠습니까."

교구본사 주지소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법정 스님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켜가고 있다. 조석예불은 빠짐없이 참석하고, 종무를 살피는 시간에도 화두를 든다.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공양을 하다가,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의심이 나거나 공부가 잘된다 싶으면 정진을 한다.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였을까. 출가해 한창 공부에 몰두하던 시절을 말씀하셨다. '무(無)' 자 화두를 타서 공부를 하다가 '시심마' 로 바꿔서 용맹정진을 하는데, 어느 날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과거 지나온 과정이 보이면서 무슨 공안인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게 되었고, 어떤 질문이 든지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다는 느낌이 확연해졌다. 그런데 그 뒤 3일이 지나자 화두조차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흐려졌다. 환해졌던 당시 스승에게 점검받지 않은 것을 참으로 후회했다며 법정 스님은 빙그레 웃는다.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청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순간순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 잘못 뛰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눈 감으면 죽고, 눈 뜨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이고 현실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요. 오가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니, 내가 하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해와 같고 번뇌는 구름과 같습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구름과 같아서 본마음을 가리지만 본마음은 변할 줄 모르니 그 마음으로 돌아가 참회하고 모든 것을 쉬어야 합니다. "

법정 스님이 종무일을 보는 책상 유리 아래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끼워져 있다. 거기에는 '주지 신조' 라는 문구 아래 '인내로서 불행(佛行)을 삼고, 노력으로 정진(精進)을 삼고, 평상심(平常心)으로 도(道)를 삼자' 는 다짐이 적혀 있다.

'선지종찰(禪之宗刹)' 수덕사.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으로 이어져 온 근세 선불교의 고향인 수덕사의 선풍이 아직도 면면히 살아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풍을 잇기 위해 묵묵히 화두를 들고 있는 법정 스님과 같은 스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덕사/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